

천혜절경 피오르드 탐방  
러시아 북유럽 6국 12일  
6/19, 7/3, 7/10, 7/31 출발 3,599,000원부터\*  
하안풍차투어 문의: 02-777-6566

## 1만4600시간·5만8000통 사연... “청취자들의 힘이죠”

MBC 표준FM ‘여성시대’ DJ로 20년

### 양희은

“20년 동안 ‘여성시대’라는 대학에 다니며 공부한 기본이예요.”

가수 양희은(67)의 청아하면서도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20년째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한번도 거르지 않고 20년 동안 MBC 표준FM ‘여성시대’의 마이크를 잡은 그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양희은은 새벽 5시30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한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라디오부스로 향했다.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자신도 “이만큼 할 줄 알았다면 절대 시작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여긴다. 양희은의 라디오 DJ 20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가 4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열렸다. 양희은이 직접 들려준 “여성시대”와 함께 한 20년”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20년간 새벽 기상...자기관리도 철저  
그만해야지 싶어도 청취자들 때문에  
2001년 희제 엄마 사연 아직도 눈물  
9번째 ‘골든 마우스’, 그제 영광이죠



#### ●1만4600시간 ‘온 에어’

양희은은 1999년 6월7일 ‘여성시대’의 DJ로 처음 나섰다. 그가 지금까지 DJ로 보낸 시간은 약 1만4600시간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사연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거듭한다. “사연을 미리 읽은 뒤 청취자에게 전할까, 아니면 ‘초견(약보를 보고 처음부터 바로 연주하는 것)’으로 전할까 고민한다”고 했다. 사연 속 사투리를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 “드라마 배우들의 연기를 유심히 듣는” 과정도 거친다. 흠이 없는 진행자가 되기 위해 매 순간 애쓰지만 “DJ로서의 비결은 없다”며 겸손함을 보인다.

“여성시대”는 가슴으로 쓰는 편지로 이뤄지는 곳이다. 그저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만이다. 프로그램의 힘은 사연을 보내주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그만뒤야지’ 싶으면서도 계속 했던 이유는 청취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연대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연을 듣고 ‘나도 그랬어’라고 느끼는, 청취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감의 파도를 봤다. 그 거대한 어깨동무가 주는 힘이 분명 있다.”



가수 양희은이 4일 MBC 표준FM ‘여성시대’ 진행 20주년을 맞아 ‘청취자들과 연대, 공감의 파도, 거대한 어깨동무가 주는 힘’을 장수 비결로 꼽았다. 양희은(왼쪽)과 그의 다섯 번째 파트너 서경석이 이날 서울 삼양동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팔로 하트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MBC

매일 오전 9시5분 방송을 준비하느라 20년간 새벽에 눈을 뜨니 이전 “완전한 아침형”이 됐다. 해가 지고는 가끔적 외부에 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늦게 잠들면 다음날 방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매사 철저한 그 또한 아찔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언젠가 오전 11시 방송인데 40분 늦게 도착했다. 눈이 매섭게 내렸다. 자동차를 버리다시피 하고 지하철에 버스를 갈아타고 왔는데도 방송 끄트머리에 도착했다. 맥이 다 빠지더라. 그날은 눈이 딱딱하게 얼어다 음날 일찍 올 자신도 없었다. 아예 방송국 근처 호텔에서 외박을 해버렸다. 하하하!”

#### ●5만8000여 통의 사연

지금까지 양희은이 읽은 청취자 사연은 5만8000여 통에 달한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을 물으니 단번에 “2001년 4월 소개된 ‘희제 엄마’ 추후속 씨의 편지”를 꼽았다. “어떤 사연도 죽음만큼은 못 한다”며 양희은은 울컥했다.

“유방암 말기의 엄마가 6살 아들을 향해 쓴 편지를 사후에 걸쳐 전했다. ‘여성시대’ 애청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음성사서함에 쏟

아졌다. 어떤 청취자는 귀한 휴가를 희제 엄마의 병상 곁에서 보내기도 했다. 과일즙으로 입술이라도 촉여달라며 소정의 금액을 보내준 분들도 있다. 희제 엄마도 전화 연결로 청취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이가 떠났다. 30주년 음반을 만들 때였다. 그 음반을 희제 엄마를 떠올리며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참 잊을 수 없다.”

#### ●다섯 명의 ‘양희은의 남자들’

양희은과 함께 ‘여성시대’를 이끈 DJ는 방송인 김승현을 시작으로 전유성, 송승환, 강석우를 거쳐 현재 서경석이다. 파트너가 다섯 번이나 바뀐 것에 “내 팔자가 세서 그런가”라며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 지난 DJ들을 향해서는 “저들이 더 ‘좋은 풀’을 찾아 떠난 것”이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서경석은 2015년 7월부터 양희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양희은의 다섯 번째 남자가 아닌 50번째 남자가 되어도 영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은 누님의 어머머만한 프로정신에 크게 감명한다. 방송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다. 특히 식사시간이 그렇다.(웃

음) 먹는 것부터 사소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신경써왔기 때문에 20주년 기념 간담회도 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 ●9번째 ‘골든 마우스’ 주인공

양희은은 7일 MBC에서 20년 근속한 라디오 DJ들에게 주어지는 골든 마우스를 받는다. 그간 골든 마우스를 손에 쥔 주인공은 이종환부터 임국희까지 8명이 전부다. 양희은은 9번째 수상자다.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양희은은 들뜨지 않으려 한다. 그저 “땀을 뺀 후 후딱 지났을 뿐”이라고 낮춘다. 하지만 라디오에 대한 애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하다. “동네 공장 앞 제니스 라디오에 귀를 쫓긋 기울이고 있던 1960~70년대 어릴 적을 떠올리게 하는” 라디오는 그에게 과거이자, 현재다. 숨을 수 있는 ‘파란치’이면서도 “긴 세월 짝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여성시대”의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조차 양희은은 “특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전파라는 건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이니, 자신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 ‘여성시대 20년’ 기억에 남는 사연들

“여성시대”는 진행자들의 입담으로만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1975년 ‘여성살롱 임국희예요’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수많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로 시대를 말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프로그램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인상 깊은 몇 편을 꼽았다.

●...“엄마는 나처럼 아픈 기억을 안고 자라왔고,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된 어린애였구나...”(2019년 이다현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

●...“우리 부모님처럼 살 것을, 사랑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 부모가 아니라 후회 없이 넘쳐도록 사랑해 주는 일로 지난 과거를 모두 잊게 하신 우리 부모님처럼 살 것을.”(2013년 애청자 ‘부치지 못할 부모님 전상서’)

●...“사랑의 정신이란 먹고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삶의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시 자리를 찾아가합니다.”(1991년 이외옥)

#### ? 양희은

▲1952년 8월13일생 ▲1971년 노래 ‘아침이슬’로 가수 데뷔 ▲1975년 대한민국 가수상 ▲1984년 대한민국 가사대상 ▲1987년 ‘아침이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작은 연못’ 등 금지곡 해금 ▲이후 ‘하얀 목련’ ‘내나이 마흔살에는’ ‘슬픔이엔 안녕’ ‘엄마가 딸에게’ 등 발표 ▲1996년 한국방송대상 가수상 ▲1999년부터 MBC 표준FM ‘여성시대’ 진행 ▲2011년 MBC방송연예대상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2019년 MBC 골든 마우스상

#### ? 여성시대

MBC 라디오 표준FM ‘여성시대’는 1975년 ‘여성살롱 임국희예요’의 뒤를 잇는 프로그램이다. 이후 1988년 4월1일부터 프로그램명을 ‘여성시대’로 바꾼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기자 이종환과 손숙을 거쳐 지금의 양희은으로 진행자가 바뀌었다. 이들 여성 진행자를 중심으로 이종환, 봉두완, 변웅전, 정한용, 김승현, 전유성, 송승환, 강석우 등 남성 진행자들이 마이크 앞에 앉았다. 많은 청취자의 일상적인 사연을 토대로 진행자들의 맞춤형 입담이 어우러지며 사랑받고 있다.

### 연예뉴스 HOT 5

#### 윤종신, 음악 전념 위해 ‘라스’ 하차



윤종신

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이 음악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MBC ‘라디오스타’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윤종신은 4일 자신의 SNS에 “2020년 ‘월간 윤종신’이 10주년을 맞게 되는 해에 제가 꿈꾸고 바랐던 ‘이방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작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왔고, 10월 해외로 떠난다. 그는 “창작자로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며 “도태되지 않으려는 한 창작자의 몸부림이라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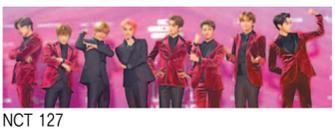
#### 남량드라마 ‘M’ 내년에 리메이크



드라마 ‘M’

배우 심은하가 1994년 출연한 남량드라마 ‘M’이 내년 재탄생한다. ‘M’의 2020년 버전 기획 중인 제작사 슈퍼문 픽처스는 4일 “원작의 이흥구 작가와 최근 포맷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은하가 맡았던 캐릭터를 새롭게 연기할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M2020’을 가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심은하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M’은 나태의 윤리성을 고발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며 5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 NCT 127 새 앨범 ‘빌보드 200’ 11위



NCT 127

그룹 NCT 127의 새 미니앨범 ‘NCT #127 위 아 슈퍼휴먼’이 미국에서 잇달아 성적을 내고 있다. 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5월24일 발매한 NCT 127의 앨범은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1위, ‘월드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NCT 127은 최근 북미 투어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등 현지 입지를 다지고 있다.

#### 유노윤호, 안전홍보대사 위촉



유노윤호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안전홍보대사가 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1년 간 안전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행안부는 “늘 열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활동하는 유노윤호가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에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졌다”며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홍보 영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돕고,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홍보에도 나선다.

#### 유병재, ‘청예단’에 1000만원 기부



유병재

방송인 유병재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 해달라며 푸른나무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청예단)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푸른나무 청예단 후원 담당자는 4일 “유병재님께서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에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